Global Strategist 민병규 3770-3635

글로벌 전략 노트

Weekly takeaways(7/9일)

이익으로 보나 밸류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4월 Liberation day 이후 미국 증시의 EPS 는 지속 하향 추세. 반면 주가는 전고점 돌파. 밸류에이션 부담도 원복 되며 악재에 취약해진 상태.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8/1일로 유예. 관심은 2Q 실적시즌에 집중.

2Q 실적시즌은 Magnificent7의 위상이 재차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 미국 증시의 분기별 이익전망치 하향 조정은 일단락되는 양상. M7이 속한 IT 와 Communication 섹터의 상향이 상쇄하고 있기 때문. EPS 증감률의 레벨도 IT 가 +16.6%, Communication 이 +12.8%로 우세(vs S&P500 +2.8%).

M7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진 상태. M7의 12MF PER 은 2022년 이후 평균치(29.3배)에 머무르고 있으나, ex M7은 추세적인 상승세. 결국 기대에 미달하는 실적에 더 민감한 것은 ex M7일 것.

M7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 M7과 S&P500 ex M7의 이익증감률 괴리는 23Q4를 정점으로 축소 중. 향후 역전(ex M7 우위)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무산. M7은 전분기에도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 M7의 24Q1 EPS 증감률은 작년말 18.1%(vs S&P500 ex M7 11.2%)로 예상되었으나, 확정치는 31.8%(vs 9.6%)로 집계.

섹터별 ETF 수급에서도 M7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 그동안 다양한 테마로 흩어졌던 자금이 최근에는 IT 와 Communication(+경기소비재) 섹터로 이전.

4월 이후 글로벌 fund flow 는 신흥국 증시에도 귀환. 특히 그동안 매도세가 강했던 대만 증시에 대한 태세 전환이 뚜렷. 최근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NVIDIA 의 주가와 동행. 대만과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은 대체적인 성격이기 보다는 동행한다는 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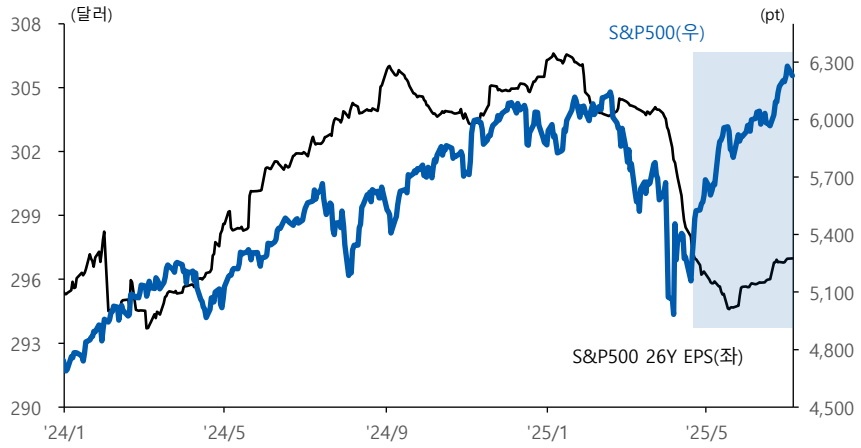
Key Charts

미국 증시의 EPS는 지속 하향 추세. 반면 주가는 전고점 돌파.

밸류에이션 부담도 원복되며 악재에 취약해진 상태.

미국의 상호관세는 8/1일로 유예. 관심은 실적시즌에 집중.

미국 증시의 EPS는 주가와 상반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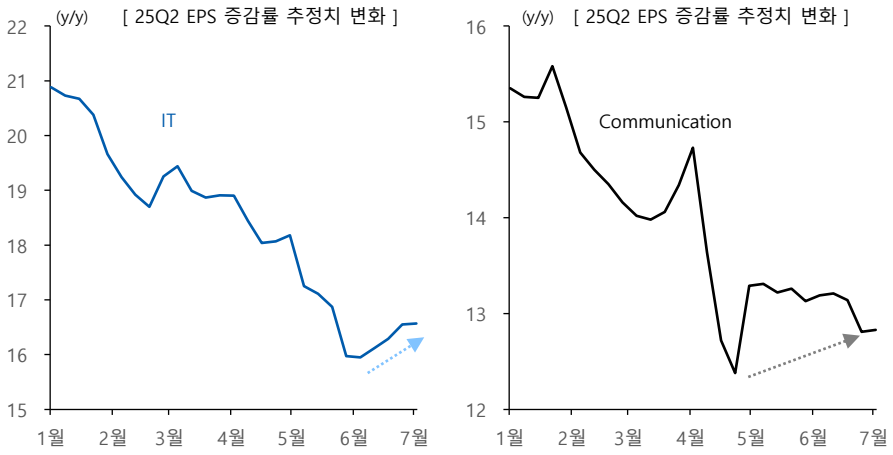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Q 실적시즌은 M7의 위상이 재차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

미국 증시의 분기별 이익전망치 하향 조정은 일단락.

IT와 Communication 섹터의 상향이 상쇄 중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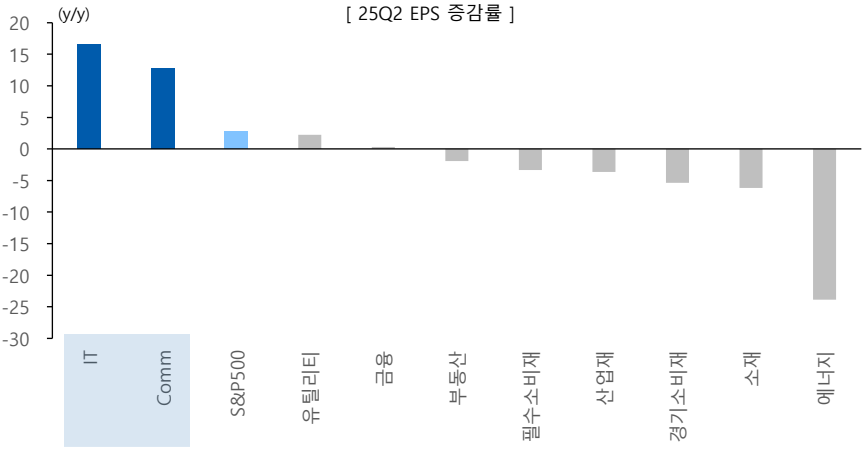
지수 EPS 하향 조정은 일단락. IT와 Communication 섹터가 주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PS 증감률의 레벨도 IT가 +16.6%, Communication이 +12.8%로 우세(vs S&P500 +2.8%).

IT와 Communication 섹터는 2Q 이익성장률의 레벨도 높게 추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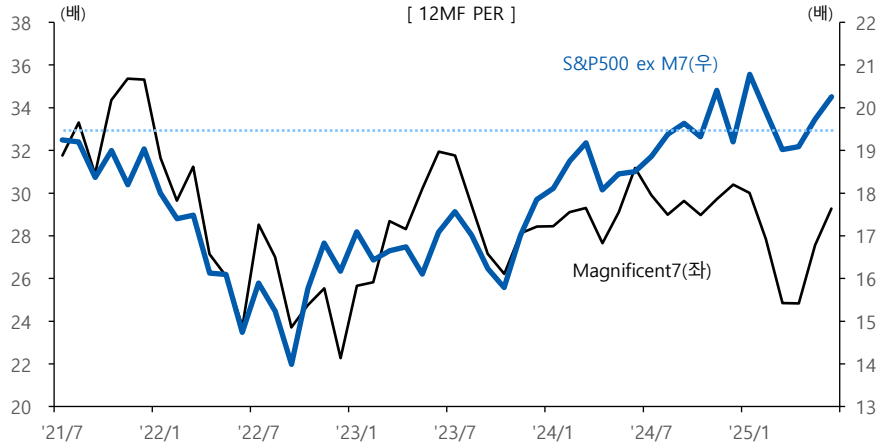
Key Charts

M7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진 상태.

M7의 12MF PER은 2022년 이후 평균치에 머무르고 있으나, ex M7은 추세적인 상승세.

결국 기대에 미달하는 실적에 더 민감한 것은 ex M7일 것.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ex M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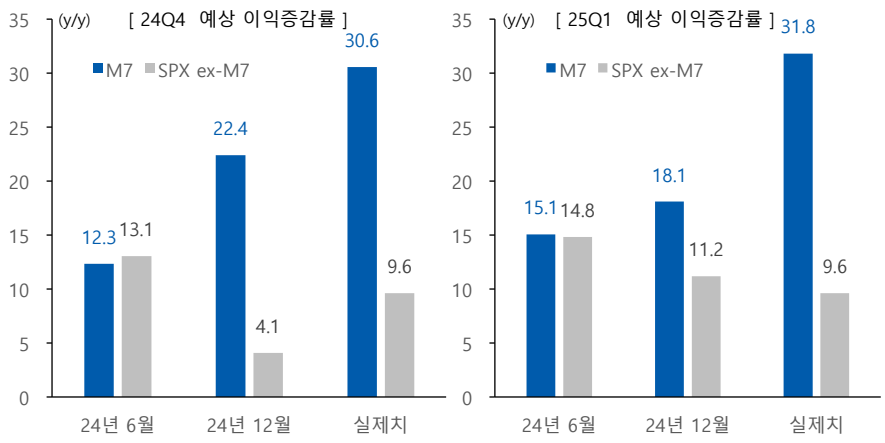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M7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 왔다는 점도 참고할 만.

M7의 24Q1 EPS증감률은 작년 말 18.1%(vs ex M7 11.2%)로 예상되었으나, 확정치는 31.8%(vs 9.6%)로 집계.

역전되지 않는 M7과 ex M7의 이익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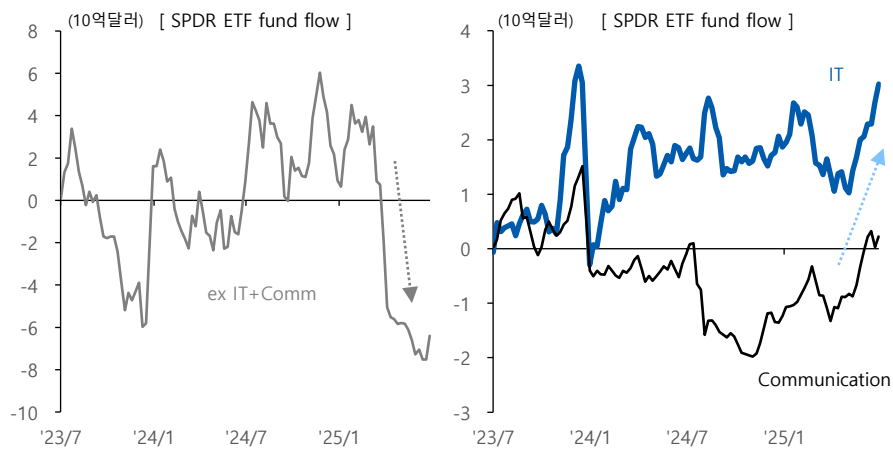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섹터별 ETF 수급에서도 M7에 대한 기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

그동안 다양한 테마로 흩어졌던 자금이 최근에는 IT와 Communication 섹터로 이전.

Fund flow도 IT와 Communication 섹터에 다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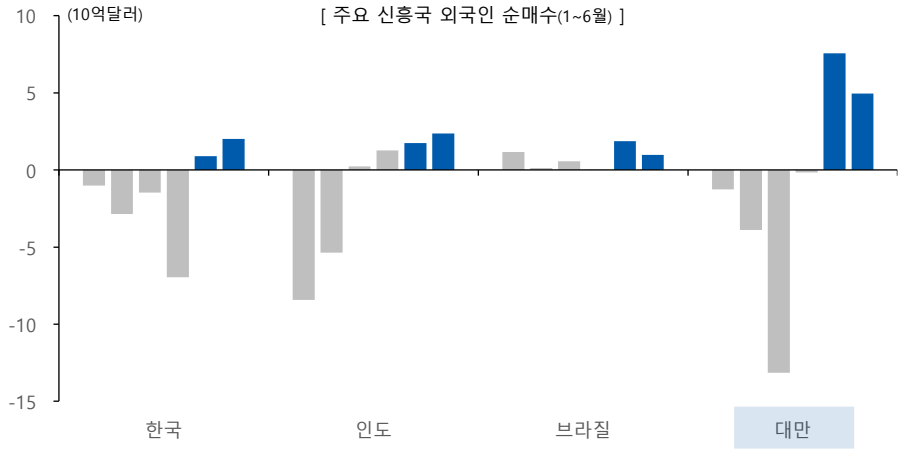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s

4월 이후 글로벌 fund flow는 신흥국 증시에도 귀환.

특히 그동안 매도세가 강했던 대만 증시에 대한 태세 전환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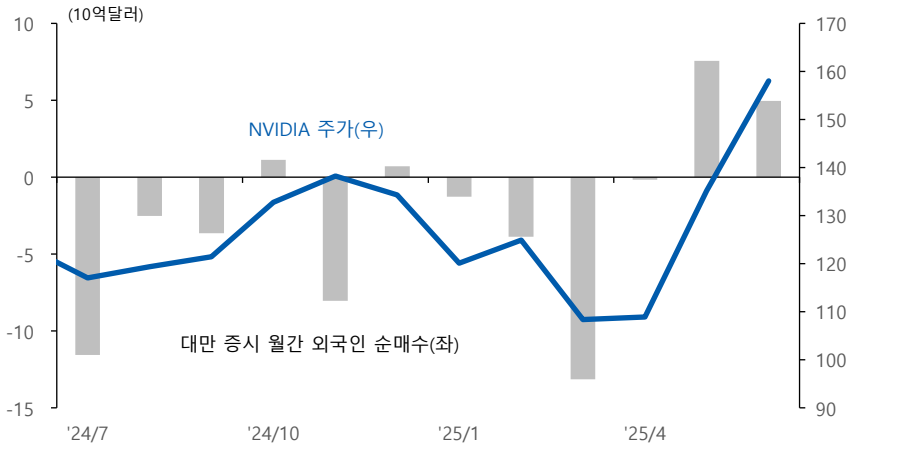
대만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만 증시에 대한 매수세는 최근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NVIDIA의 주가와 동행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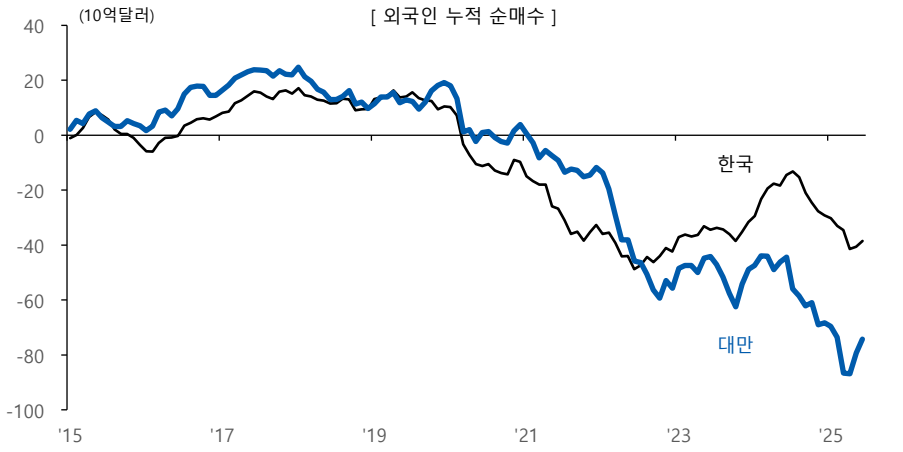
대만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추이는 NVIDIA의 주가 흐름과 유사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만과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은 대체적인 성격이기 보다는 동행하는 흐름.

한국과 대만 증시의 외국인 수급은 대체적이기 보다는 동행하는 성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민병규)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